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고양소방서



봄을 맞이하는 기지개를 켜고 동시에 겨우내 숨어있던 화재 부주의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협하려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있기에 이런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는다.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김윤철 예방대책팀장에게 봄철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서충식 사진 신민규



1 (좌)김윤철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장 (우)권민철 소방교
2 고양소방서 전경
3 업무 모습



불조심 !! '봄철 화재 예방 대책'

고양시의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건 중 22%가 봄철에 발생했다.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 일반 가정, 야외, 공사장에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합동점검과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는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퇴직 소방관·경찰관이 학생들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사찰·문화재의 소방 안전 점검과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총 4가지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 외에도 고양시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또 있을까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마쳤고, 2단계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복합건물, 위험물 시설, 교육연구 시설 등 1,474곳을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 등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방 출동로, 주변 상황 및 화재진압 여건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는 고양소방서 일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라는 말을 여러 번이나 되뇌는 든든한 존재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소방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집 화재 예방은 '기본'으로부터 시작

일반 가정집에서의 화재는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미숙한 초동조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다. 김윤철 팀장은 시민들에게 소화기,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당부했다.

일반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화재 예방 TIP이 있을까요?

불이 났을 경우 외부로 탈출하는 경로를 기억해둬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 세 가지를 줄여 저희는 '소소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꼭 알아두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방당국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으며, 사용법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보고 숙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면서 농가와 단독주택 등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큰 화재를 야기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만 있어도 많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가정의 행복을 지키길 바랍니다.